

소비량은 2009년 2110g까지 성장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이뤄진 급격한 성장으로 가금 산업에서 오리산업의 비중이 점차 커졌지만 1조 원이 넘는 산업 규모에 비해 산업의 위상이 낮으며 기반산업은 육계나 산란계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다. 제대로 된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것도 불과 몇 년 밖에 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대다수의 축사는 낙후돼 있다. 또 지난해 중반부터 심각한 공급 과잉을 야기했던 F1오리의 사육문제 또한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고 고병원성 AI로부터 자유롭지도 못하다.

하쿠나마타타 폴레 폴레! ‘괜찮아 다 잘 될꺼야. 천천히, 천천히’라는 뜻을 가진 스와힐리어 한마디에는 단순함속에 긍정적인 사고와 느낌의 미학, 그리고 끝없는 도전의식과 자신감이 담겨있다.

머나먼 아프리카 땅의 이 한마디가 올 한해 오리 산업에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이제까지 빠른 성장을 따라잡기에 바빴던 오리산업은 이제 낙관적인 사고로 천천히 산업기반을 일으켜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먼저 통계확보, 법률정비, 오리산업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풀 구축, 기초 및 응용연구 확대 등을 통해 오리산업의 저변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외연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오리산업을 대표하는 생산자 단체인 오리협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둘째로 농장의 생산성 향상과 방역 강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현대화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곧 다가올 중국과의 FTA에서 국내산 오리고기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비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철저한 방역을 통해 수입오리고기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셋째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오리협회 및 회원사가 중심이 돼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차원의 F1사육단속 및 위반자 처벌강화 조치가 필요하다. 축산물을 비롯한 농산물은 공급이 1%만 많아지더라도 가격의 낙폭이 커지는 만큼 안정적인 수급을 가장 크게 해칠 수 있는 F1사육 단속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현재 오리 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종오리 수급조절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오리산업은 올해까지 급격한 성장을 이어가기 보다는 이후 이어질 더 빠른 성장을 위해 내실을 다져가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 하쿠나 마타타 폴레 폴레! 오리산업의 주체들이 자신감을 갖고 단순하게, 조금 느리게 저변을 강화하고 산업을 돌아보며 부족한 점을 채워가는 한해가 되길 기원해 본다.

### ‘오리산업’ 축산업 마지막 블루오션 “시장 잠재력 · 가능성 검증…주요 축산물로 자리매김 해야할 때”



**이혜진**  
축산경제신문  
기자

몇 해 전부터 오리 산업은 축산업의 마지막 블루오션 (blue ocean)이라고 칭해지며 오리 산업의 시장 잠재력과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대부분의 농축산물의 생산량과 소비량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리 산업의 성장 속도는 축산업뿐만 아니라 농업계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1992년 오리생산액이 222억에 불과했는데 20년도 채 안된 지금 2008년 1조를 넘어서며 생산액 2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그 파급 효

과를 증명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오리업계를 가장 어렵게 하는 AI가 발병한 가운데 자구책을 통해 AI를 극복하고 얻은 성과라 그 의미가 크다.

오리 산업은 같은 가금류에 속한 닭 계열화 사업과 비슷한 형태로 비교적 가공이나 생산 기반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내는 데는 성공하며 급성장했다.

하지만 생산과 가공부분의 비약적인 발전에 비해 산업을 뒷받침해주는 후방산업은 동반성장하지 못해 오리 산업의 약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금껏 앞만 보고 달려온 오리 산업이 앞으로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전 후방산업의 단계적인 동반 성장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종자 문제는 오리업계가 풀어야 할 가장 큰 문제다. 유전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AI로 인해 수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오리업계는 수급을 맞추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여기에 종오리의 수입량마저 충분치 못하다보니 도축을 해야 하는 실용오리 중 실한 것들을 골라 종오리로 사용하는 편법까지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른바 F1 종오리라 불리는 이 종오리는 종란생산성이나 부화율 등 생산성이 낮아 결국 오리 생산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오리협회가 F1근절을 위해 종오리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 초기 단계라 정착하지 못하고 무분별한 F1입식으로 인해 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오리 산업의 안정을 위해서는 협회뿐만 아니라 회원사, 사육농가들이 솔선수범해 반드시 F1오리는 근절해야 한다.

또 종오리데이터베이스 사업도 역시 완전히 정착되지 못했는데 정착하기 위해서는 종오리 농가에 대한 더 많은 교육과 관리가 이뤄져야 하며 나아

가서는 육용오리 데이터베이스 사업도 추진해 수급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백색육과 적색육을 장점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오리고기 만의 독특한 특징 때문에 소비자들의 오리고기에 대한 인식이 좋기 때문에 생산량만 받쳐준다면 앞에서 말한 대로 성장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산업임을 알 수 있다.

오리 산업은 2012년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산업의 단점을 보완, 극복해 이제 축산업의 주축 산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때이다.

오리 산업이 잠재력만 있는 산업이 아닌 실제 축산업을 주도하는 품목으로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12년 오리산업 전망 및 발전방향



고성진  
한국농어민신문  
기자

2011년 축산업계는 FMD(구제역)와 HP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여진으로 힘든 한해를 보냈다. 전국적으로 350여만 두의 소·돼지가 매몰 처분됐고, 지난해 발생한 AI로 600여만 마리의 오리와 닭이 땅에 묻혔다.

국가적 재앙이라고 일컬어질 정도의 피해였다. 피해 농가들로서는 하루아침에 생계가 끊기면서 어느 해보다 팍팍한 한해를 보냈다. 보상금이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어느 때보다 가장 많았다.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농가들의 마음은 아스팔트 도로만큼이나 차갑고 어두웠다. 오리 산업도 AI 여파로 흥역을 겪었다. 종오리가